

# 집 붕괴 징후 주인에게 알린 반려견



▲ 붕괴된 주택(왼쪽), 제이크(아래)와 더치스(위)

두 마리 반려견이 주택 붕괴 직전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 주인의 목숨을 구했다.

4일 동물 전문 매체 더 도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맨빌에 사는 여성 미셸 무어는 2주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크리치와 깊은 잠에서 깬다. 새벽 1시 30분에 애완견 제이크가 침대 위에서 뛰며 사납게 짖어댔기 때문이다. 제이크는 남자친구의 턱수염을 입으로 붙잡고 당겼다. 무어는 제이크가 이런 행동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기에 의아하기만 했다.

그런데 다른 애완견 더치스도 함께 짖기 시작해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일어났다. 그때 집 반대편에서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.

무어는 "에어컨이 꺼지고 모든 전기가 나갔다. 그 다음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."면서 상황을 살펴러 나간 남자친구가 "집이 무너지고 있다. 우리 여기서 나가야해"라고 외쳤다."고 당시를 떠올렸다.

무어는 즉시 침실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집 내부 복도 벽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큰 구멍이 생긴 상태였지만 다행히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. 무어의 집은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홍수로 집이 붕괴됐다.

무어는 "내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져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."면서도 "제이크와 더치스가 함께 살아남아 다행이다. 내가 눈물을 보이기만하면 두 녀석은 내게 쏘살같이 달려온다."며 붕괴 위험을 미리 알려준 두 마리 개를 '영웅'이라고 말했다.

# 남친 묘소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오열한 여성

최근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묘소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찾아가 오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공개돼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.

폭스뉴스는 지난달 29일 메릴랜드주 에미즈버그에 있는 국립 순직소방관 추모공원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던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.

인디애나주 에번즈빌에 사는 여성 제시카 패지트(25)는 묘지에 잠들어 있는 남자친구 켄들 제임스 머피와 이날 원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. 머피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지낸 뒤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도 직업 소방관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역 소방서에서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했다. 두 사람은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.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10일, 패지트는 머피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. 그리고 머피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.

하지만 머피는 10분이 넘도록 답장하지 않았다. 패지트는 남자친구가 피곤해 먼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잠자리에 들었다. 그런데 몇 분 뒤 패지트는 머피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.

머피는 패지트가 그녀의 집으로 돌아간 뒤 지역 소



방서로부터 자원봉사 도움을 요청받았다. 인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. 머피는 즉시 차를 몰고 현장으로 출동했다. 그런데 또 다른 자원봉사자의 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. 사고를 낸 동료 봉사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.21%로 법적 제한치인 0.08%의 두 배 이상인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. 이 봉사자는 이 사고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.

한편 머피는 미국 순직소방관재단(NFFF)에 의해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 순직소방관 추모공원에 안장된 인디애나주 출신 소방관 5명 중 1명이다. 그의 묘비에는 '가족,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 이타적인 사람'이라는 글귀가 새겨졌다.

# 여동생 잔소리에 거액 당첨 복권 발견

한 캐나다 남성이 여동생의 잔소리로 옷장을 정리하던 중 재킷 안주머니에서 거액에 당첨된 복권을 발견해 화제이다.

6일 캐나다 CBC방송에 따르면 그레고리오 데상티스는 지난해 말 복권 1장을 구입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. 그러다 옷장을 정리하라는 여동생의 잔소리 때문에 그가 산 복권이 175만 캐나다달러(약 174만 6천 달러)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데상티스는 '정리좀 하라'는 여동생의 잔소리가 없었다면 옷장 속을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. 실제로 이 복권은 지난해 12월 구매한 것으로 만일 올해 12월이 지난 뒤에 발견했으면 당첨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할 뻔했다.

데상티스는 1970년대부터 복권을 구매해온 것으로



알려졌으며 그간 최고 당첨 금액은 4,000캐나다달러였다.

데상티스는 "당첨 금액을 알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."면서 "당첨금으로 노후 자금을 충당하는 것 외에 조카를 데리고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전하고 싶다."고 말했다.

CA Lns Lic # 0B18537

■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안내

# 최근에 은퇴하셨습니까? 곧 은퇴하실 계획입니까?

## 10% 즉석보너스

"과거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중에는 손해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. 철통같은 원금보장 덕분이지요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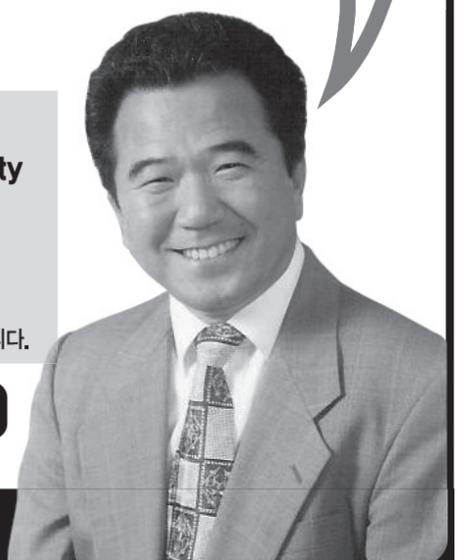
### 401(K) Rollover 은행CD Account 이전

#### 철통같은 보장성 연금플랜

증권시장의 위험성을 원천봉쇄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Social Security 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이 보장되는 플랜

- Transfer: 은행CD, IRA Accounts
- Rollover: 401K, TSP등 각종 직장 은퇴플랜

\* 직장을 옮긴 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Account를 하루 속히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
## 조신천 보험·재정 714.323.7420

Email; choinsurance@yahoo.com

### 8308 Stanton Ave., Buena Park, CA 90620